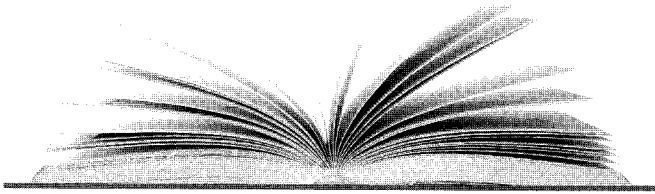


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다고 한다. 가장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냐고. 많은 답변이 있었지만 1등으로 선택된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마음이 맞는 사람(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여행이라고.

한 번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같이 만나고 일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여행자인지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토닥토닥 하는 걸 사랑싸움한다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심해지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혈압 오르는 원인이라.

함께 가는 길



내가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루가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면 이에 대한 반성을 자주하게 된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와 다른 성품이거나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데도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주 잔소리를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입이 삐죽 내밀어지는 걸 느낀다. 시간 지나보면 결국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건데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툭툭거리는 걸 자꾸 느낀다.

불편 팔찌라는 실화가 생각난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어느 단체의 책임자가 팔목에 실로 된 팔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왼쪽 손목의 팔찌를 오른쪽 팔목으로 옮기기로 했다. 하루에 수없이 자주 왼쪽 오른쪽을 옮겨 다니던 실 팔찌가 대략 두 세 달이 지나니까 거의 안 옮겨지게 됐다고 한다.

그의 사례가 잔잔하게 지역사회에 퍼져갔고 너도 나도 팔찌를 차고 다니며 스스로 불평·불만의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을 벌여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긍정적으로는 감사를 하며 사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불평·불만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다면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필자 시계를 팔찌 처럼 옮겨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정신없이 자주 옮



이상희 실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겨 다닌다.

지난 9월 중에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의 육계 계열화 현장을 잠시 방문하고 왔다. 대개 그동안 미국 측의 계열화 사업에 주로 젖어 있던 터라 솔직히 유럽의 육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거나 견학할 틈이 없었다. 네덜란드의 바르네벨드에서 IPC 코스를 공부했는데 공급체계도 산란계와 종계에 대해서만 배웠을 뿐 육계는 계열화 사업이 발전되는 시기라 그런지 유럽 육계를 공부할 기회가 적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의 육계 시장을 보며 느꼈던 것은 이곳의 농가와 계열업체는 우리에게 비해서는 훨씬 여유롭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계열화 업체와 농가 사이의 상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형평성이 있어 보였다. 상호간에 병아리를 계약에 의해 사고 팔고, 사료도 역시 농가가 직접 구입하여 생산한 후 출하할 때도 2개월 단위의 가격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병아리 폐사율과 사료 단가와 요구율, 출하체중에 따른 가격기준도 큰 변동 없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오랜 세월동안 상호간의 협력 속에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그 계약서를 보고나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계약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원종계와 종계의 기본적인 통계들이 정확히 집계되고 농가의 사육규모와 육계 재고

등이 주간 단위로 혹은 월간 단위로 분석되어 관련 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다. 통계의 정확성과 공유, 그 작은 힘이 꾸준한 사육,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힘이에요,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병아리 폐사율에 대해서나 사료 품질에 대해서나 출하 시 계육가격에 이르기까지 힘든 난제들이 큰 곤란없이 함께 간다고 했다. 물론 유럽도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남미와 미국에 밀려서 점차 도계장 또는 종계장 중심의 M&A가 확산되면서 극심한 생산비 싸움을 한다고 한다. 그 나름의 논리와 시장 상황에 있어서 무척 힘들어 보이기도 했다.

함께 하는 사업이, 그것도 남과 협의하며 하는 사업이 어찌 여행처럼 즐겁겠는가마는 얼마나 서로 공존공영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그 공개된 힘으로 서로를 위해 도와줄 때에 한 걸음씩 우리도 즐거운 사업이 되리라 생각해 본다.

사육성적의 평가부터 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지원 방향까지 또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 줄 제도적인 방향까지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 걸음씩 서로의 여행 보따리를 들어주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육계산업은 더욱 발전하는 산업이 되리라 믿는다.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래서 더 즐거운 우리의 여행길이 되길 바라며 가을 하늘을 본다. ☘